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디지털세'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글로벌 '디지털세'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GloBE(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loBE 이행체계와 관련한 OECD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세법개정안은 통상 7월 말~8월 초에 발표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위한 주석서(Commentary)를 공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에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해 미달세액만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주석서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예시 등이 포함됐다. 주석서의 내용은 모델규정과 병행해 준비되어 왔으며, 모델규정 합의 이후 약 3개월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완성됐다.

IF 각국은 모델규정 및 주석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규정을 자국 세법으로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물관·수목원 입장때 '세금포인트'로 할인받는다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 가능)'로 박물관이나 수목원을 관람(또는 입장)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비대면)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세금포인트는 주로 징수유예·납기연장을 요구할 때 납세담보 면제 혜택으로만 쓰이다 보니, 사용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 할인쇼핑몰 이용,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용도를 넓힌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혜택 확대 이후에도 세금포인트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 위주의 혜택 외에 근로소득자 등 비사업자에 대한 세금포인트 사용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자 확대를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적 면제 추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방지하고자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에 20%(3주택 이상의 경우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주택 거래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매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